

해외시장 정보부족 등 수출활동 애로 국가 차원 여성특화 지원 시스템 시급



여성기업 글로벌화 해법은

여성기업 무역통계 등 데이터 부실
수출지원제도 인지율 8.8% 그쳐
“신사업 개발·사전연구 이뤄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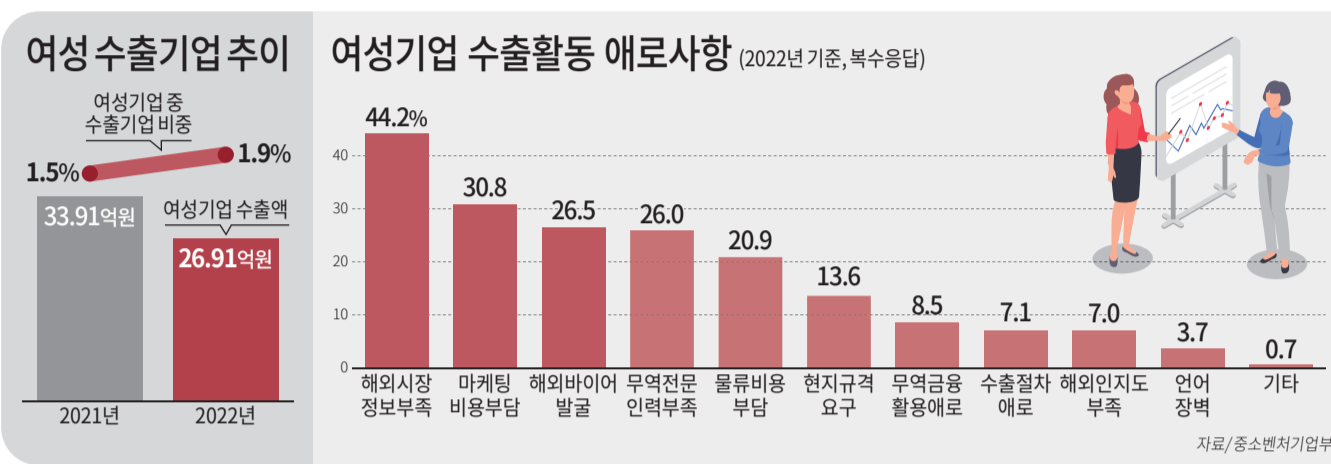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산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제3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연구소 김보례 선임연구위원은 “여성이 대표자인 여성기업들의 정확한 무역 통계가 없어 관세청 자료를 통해 여성기업만을 위한 수출 통계를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면서 “특히 식품, 화장품, 패션, 섬유 등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사업을 개발하는 동시에 글로벌 분야에서 여성 진출이 저조한 이유 등을 분석하는 사전 연구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발간한 ‘2023 여성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4만597개 여성기업 중 수출기업(2022년 기준)은 1.9%인 446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의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39.6%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의 2023년 조사 자료를 보면 매출액의 25% 이상이 수출로 이뤄진 여성기업 비중은 한국이 2.5%로 49개국 중 37



위에 머무르고 있다. 일본, 모로코, 우루과이, 태국 등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성기업 글로벌 평균은 8.3%다.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여성기업의 수출기업 비중은 전년도의 1.5%에서 소폭 늘었다. 다만 평균 수출액은 2021년 33억9100만원에서 2022년 26억9100만원으로 1년새 26% 감소했다. 중소기업 평균 수출액은 18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여성기업들은 수출활동의 주요 애로로 해외시장 정보 부족, 해외마케팅 비용 부담, 해외바이

어 발굴 어려움 등을 주로 꼽고 있다”면서 “특히 수출지원제도 인지율이 8.8%에 그칠 정도로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이

**韓 여성경제활동 OECD 평균 이하
지속성장 위해 여성인재 활용 필수
“가사·양육 등 불평등 해소해야”**

용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여성기업들의 글로벌화

를 돕기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 시장조사, 진출 컨설팅 등 ‘1단계 사전 지원’, 그리고 온·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및 1대1 전략컨설팅, 법률지원 등 ‘2단계 진출 지원’, 해외 지사화 및 수출국 인허가, 인력 및 특허취득 지원 등 ‘수출기업 안정화 지원’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2단계 지원’과 ‘안정화 지원’ 사이에 중간 평가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미순 연구위원은 “인구절벽 시대, 지속성장을 위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계 선도국가

로 도약하기위해선 여성 인적자원 활용은 필수”라면서 “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위해선 직접적 지원책 발굴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 문제, 가사 및 양육의 남녀간 불평등 문화, 부족한 여성의 기업가정신 등 여성 경제활동을 막는 애로를 해소하기위해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여성특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에 최적화한 지속적 연구개발(R&D) ▲제품 현지화 ▲글로벌 고객 중심 접근 ▲해외 여성창업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글로벌 트렌드 파악 지원 ▲글로벌 진출 여성기업 우수사례 발굴 확산 ▲여성기업 이사회제도 활성화를 통한 네트워크 및 협력 강화 ▲국내외 체류 유학생·해외전문가 DB 구축·매칭 지원 등의 정책도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2022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1위로 역시 저조한 실정이다.

여성 기준 OECD 평균은 65.8%이지만 한국은 61.8%에 그치고 있다. 통계청 기준으로도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성(54.6%)이 남성(63.9%)보다 눈에 띄게 낮다.

여성 창업, 여성의 사회 진출이 사회적으로도 대세가 되고 있지만 한국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인력을 여전히 글로벌 경쟁국에 비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관련 생태계도 부실한 실정이다.



지난 달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서 여성 경제인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성공한 롤모델, 여성경제의 미래를 바꾸는 힘



기 고

이 정 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가 위기 극복의 강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 중, 여성의 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육성은 여성 고용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

국내 여성기업은 314만개로 전체

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눈부신 양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여성기업이 규모와 매출액이 작은 생계형 소기업으로 질적 성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남성과 동등해져 우수한 여성인재가 많이 배출되고 있고, 제도적으로 남녀차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남성기업에 비해 두드러진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그중 하나로 ‘성공한 롤모델 부재’를 꼽고 싶다.

성공한 여성 롤모델이 없는 것은 여성 창업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멘토의 부재를 의미하며,

이는 여성들이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기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마켓컬리 창업자 김슬아대표는 “여성들이 창업을 고민할 때 가장 큰 장벽은 사회적 편견과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이라며 “성공한 여성 롤모델의 부재가 창업을 결정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성공한 롤모델은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도전 정신을 고취시킨다. 이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 사회 전반의 발전과 업계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25세 이상 여성 중 50% 이상이 미국 드라마 ‘X파일’ 속 여성 과학자이자 F

BI 수사관 스킨리 박사를 보고 꿈을 키웠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박세리를 롤모델로 삼아 성장한 일명 ‘박세리 키즈’들이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성장시키고 있다.

반면 한국의 여성기업계는 어떠한가. 당장 우리 머릿속에 롤모델로 삼을만한 성공한 여성기업인은 몇이나 있을까.

이제 국가 경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성공한 여성기업인을 발굴하고 홍보해 자신의 재능과 비전을 가진 실력 있는 여성들이 창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다.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우리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3년부터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

은 성공한 선배 여성 CEO들이 멘토로 참여해 여학생들이 미래 여성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업이다.

롤모델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던 선배 여성 CEO들이 현장에서 직접 터득한 노하우와 성공 스토리를 후배들에게 공유해 그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크게 성장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공감대로부터 시작한 사업이라 그 의미가 더 크다.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 덕분에 올해 사업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기도 했다.

가까운 미래에 성공한 여성기업인들이 많이 탄생해 후배 여성 기업가들에게 영감과 실질적인 이정표를 제공하고, 그들의 성공이 계속 이어져 여성기업의 질적 성장과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